

이용섭-권은희 접전 양상 ... '사활건 혈투'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2> 광주 광산을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전·현직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다. 이 때문에 광주 8개 선거구 중 대표적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여야 각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 첫날인 31일부터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힘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힘있는 야당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경찰 수뇌부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후보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권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표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1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지역민들과 지지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 클린 봉사캠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인물과 정책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더민주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이 후보는 중앙 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 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관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광산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산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선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광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명품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 등 명품교육도시 구축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소독 하위 어르신께 매달 30만원씩 차등 지급 등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는 이번 선거를 더민주의 이용섭 후보가 아닌 박근혜 정부와의 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은희가 멈추면 박근혜가 깨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

						
정당 이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심정우	이용섭	권은희	문정은	최경미	한남숙
나이	56	64	42	29	48	61
역력	·전) 당 부대변인 ·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 18·19대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전) 권은희법률사무소	·현) 정의당 광산구 위원회 위원장 ·전) 정의당 부대표	·현) 광산구 교육회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전) 광산구의원	·현) 총중국민운동본부 부총재 ·사) 무지개대문화이사
주요 공약	·수원 문화공연장 건립 ·블로그인산단 미래자동차 특구지정 ·차 100만대 생산도시	·명품 교육도시 구축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광산경제 활성화	·명품 강소기업 유치 ·협력업체 보호법 제정 ·수원 복합문화공연장 건립	·마더센터 건립 ·대중교통 개편 ·안 5세이하 어린이 무상의료	·고교 무상교육 ·흙수저 방지법 제정 ·재벌세도입	·하남공단 활성화 ·디지털 산업단지 설립 ·중립 문화센터 건립

●더민주 이용섭

국정경험 다양... 인물·정책선거 표방

정권교체 위해 힘 있는 야당론 주장

고 현 정부와 싸워온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1년8개월밖에 안되는 반쪽짜리 초선 의원임에도 50년만에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성사시킨 독심과 실행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 복원과 관련해서는 50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 후보 측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따른 2년 동안의 고초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표심으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권 후보는 "유권자들을 만날 수록 호감도가 매우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 지역 상가와 경로당, 종교시설, 여성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다니며 젊고 친숙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관계자는 "권은희라는 콘텐츠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평가 이상의 것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싸워왔다는 뚜렷한 정점을 광주 시민들이 저버릴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기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조업 르네상스시대 열어 청년일자리 창출 ▲명품 강소기업 유치 ▲협력업체 보호법 제정 통한 중소기업 지원 ▲광산에 문화관광인프라 확보 ▲교육도시 광산 건설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과 대결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큰 성과

새누리당에선 심정우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가 나섰다.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을 지낸 그는 ▲광주 빛그린산단 미래자동차 특구 지정 ▲수완지구 복합문화공연장 건립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완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에서는 문정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문 후보는 젊은 후보답게 청년문제를 화두로 내걸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광산구 마더센터 설립 ▲만15세 이하 어린이 무상으로 ▲대중교통 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내놨다.

민중연합당에서는 최경미 후보가 "평범한 엄마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5·6대 광산구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 ▲재벌세 도입과 쉬운 해고 금지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 ▲흙수저 방지법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으로는 한남숙 동원산업 이사가 뛰고 있다. 한 후보는 현재 한국레미콘 대표와 동원산업 이사진을 맡고 있는 여성 기업인이다. 한 후보는 ▲하남공단 활성화 ▲광산구 디지털 산업단지 설립 ▲광산 종합문화 센터 건립 ▲다문화 가족 문화센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기업 투자유치에 올인

기업 보조금 지원액

3억→4억으로 증액

전남도가 외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액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1일 "지역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액을 늘리고, 기업 지원, 프로젝트매니저(PM)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규칙에 따라 분양률 50% 미만 일반 산업단지 7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 분양가의 30%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증액하고, 설비투자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모두 합쳐 5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가 큰 투자기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회사 창립일, 공장 준공일 같은 기업의 특정 기념일을 '해당 기업의 날'로 지정해 찾아가는 음악회와 기업 홍보 등 관심 표명을 통한 '투자기업 기 살리기'를 추진한다. 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채권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프로젝트매니저들의 기업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투자기업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557개 양해각서(MOU) 체결기업에 252명의 공무원을 프로젝트매니저로 임명, 매 분기별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활동사항을 보고사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71개 기업을 유치해 1만3000여 명의 고용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27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미쓰비시 중공업 규탄한다

31일 오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쓰비시는 '페이징 순서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최근 세번째 반송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난해 지역 중기제품 2조6015억 어치 구매

우선구매 공시제 정착

전남도가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2조6015억원 어치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113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지역 중기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지역 중기 제품 구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조 6015억원으로, 총 구매액(3조1212억원)의 83.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목표인 75%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4년(71.2%)보다 12.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는 전남도가 지난 2014년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전체 구매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 22개 시·군이 각종 입찰 시 지역 제한을 활용하고, 소모품도 지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2조7582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제품 총 구매 예정금액(3조 2774억원)의 84.1%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목표도 함께 설정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나갈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거 구도·판세

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는 게 지역정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후보 측은 "현재 판세로는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권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고 있어 지역구 탈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후보 측은 "여론조사상 초반의 약세를 극복하고 김중진 비례대표 '셀프공천' 효과와 '결국 도로 문제안당'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본 선거 중반에 확실한 역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밀바닥 민심은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우위를 점하기 힘든 혼전 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완·신

수완·신창·첨단 아파트촌 젊은 표심에 달려

창지구의 경우 30대 중후반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까지 이 지역의 표심을 어떤 후보가 자신의 표로 이끌어낼 지가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40대 젊은층에서 권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젊은층의 압도적 지지는 젊은 유권자들이 인물 중심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표심 반영으로 보인다"면서 "60대 이상에서 취약한 이유는 더민주에 실망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 후보 측은 젊은층의 지지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의 권은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거일까지 충분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후보는 인구가 밀집한 첨단 1·2동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완지구와 신창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후보와 접전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 후보 측은 50대 이상 국민의당 적극 지지층과 40대 초중반의 여성층, 30~40대 남성 셀러리맨이 주요 지지층으로 꼽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계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